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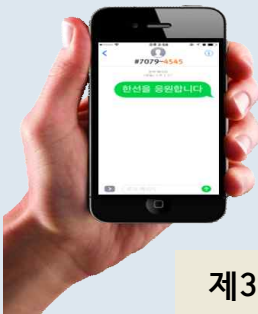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국가전략-정권의 실패, 창의성의 원천, 개인과 국가의 선택

[발제자]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일 시]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9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자유경쟁시장에서 확대재생산에 의해 가속적 성장을 하는 것을 내생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내생적 성장은 경제 내의 생산자, 유통시장, 소비자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은 선발국과 후발국의 격차를 증가시킨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이윤추구형 창의성만으로는 절대로 선진국을 추격할 수 없고 오히려 경제 격차만 더 커진다. 1) 기술 수준 차이, 2) 자본축적규모 차이, 3) 시장과 원자재 선점 등에 기인한다. 후발국은 내생적 혁신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통한 외생적 혁신이 필요하다.

- 정치는 정치인에게, 정책은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 정치는 정파 혹은 개인이 국가권력을 쥔 취하는 행위이다. 정책은 국가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이다. 정치적인 능력과 정책적인 능력은 다르다. 정치인을 정치에 국한시키고 정책은 전문가를 등용하면 정권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발전원리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 정권은 왜 실패하는가?

- ◆ 정권실패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대통령들을 보면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임기초의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다. 임기 말의 지지율은 5년간의 업무에 대한 평가다. 평가가 기대보다 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정권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임기 초부터 임기 말까지 지난 대통령들의 지지율 하락을 쫓 연결하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의 추세하락곡선과 비슷하다. 정권의 실패는 주로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경제가 실패하면 국민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가발전의 기본원리

- ◆ 국가발전에도 기본원리가 있다.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여 발전했다. 이는 산업화 초기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만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땀만 흘려서는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발전원리의 원천 중 하나는 내생적 성장이다. 자유시장에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내생적 성장, 자유시장이론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외생적 성장이다. 자유시장과 국가정책 이 두 개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기본원리이다.
- ◆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내생적 성장을 이윤추구형 창의성이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내용이 바로 자유시장의 이윤추구형 창의성이다. 또, 목적지향적 창의성이라는 것이 있다. 후발국이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해 목적지향적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창의성의 원천은 이윤추구와 목적지향이다.

가.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의 결합

- ◆ 세계 인구와 1인당 GDP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수직상승했다. 경제발전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과거, 단순재생산 사회였던 농업사회는 8000년간 경제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다. 농업사회에서는 시장이 부재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취하면서 이윤, 자본,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 수요와 공급이 정체되어 경제발전이 없었다.
- ◆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장이 생겼다. 이윤과 소득이 발생하고 자본이 축적되었

다. 늘어난 소득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축적된 자본은 기술혁신을 가져왔다. 이는 신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일으켰다. 수요는 또다시 이윤과 소득을 발생시키고 자본을 축적시켜 또 다른 신기술발전을 돕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경제는 가속적으로 발전한다.

- ◆ 산업혁명 이후 자유경쟁시장에서 확대재생산에 의해 가속적 성장을 하는 것을 내생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경제 내에서의 생산자, 유통시장, 소비자가 내생적이다. 자유시장의 내생적 성장은 선발국과 후발국의 격차를 증가시킨다. 후발국은 내생적 혁신만으로 선발국을 절대로 추격할 수 없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이윤추구형 창의성만으로는 절대로 선진국을 추격할 수 없고 오히려 경제 격차는 더 커진다. 그 이유로 1) 기술 수준 차이, 2) 자본축적규모 차이, 3) 시장과 원자재 선점을 들 수 있다. 후발국은 내생적 혁신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통한 외생적 혁신이 필요하다. 외생적 혁신에 의한 외생적 성장이 필요하다.

나. 한국과 대만의 선택

- ◆ 한국과 대만은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같이 활용했다. 선진국이 앞서 발전한 후 한국과 대만이 뒤늦게 발전을 꾀했을 때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어 보였다. 두 국가는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했다. 선진국의 기술로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같이 추구했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효과적으로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다.
- ◆ 후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생적 성장을 넘어서는 국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정책, 목적 지향적 성장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대만의 경우로 증명되었다.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함께하는 것은 선발국 대비 후발국의 부족한 내생적 혁신역량을 계획경제정책의 외생적 혁신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혼합경제 후발산업국의 경제는 확대재생산에 의한 내생적 혁신과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계획에 의한 외생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외생적 혁신’이다. 내생적 혁신의 가속하는 성장의 장점과 외생적 혁신의 빠른 초기성장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이다.

◆ 정권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 ◆ 과거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의 태평성세가 있었다. 세종의 태평성세는 태종의 결단력과 세종의 선택에서 왔다. 태종의 결단은 공신과 외척을 제거한 것이고 세종의 선택은 전문가(technocrat)를 등용한 것이다. 태종이 공신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세종이 전문가를 등용할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 ◆ 태종은 세종에게 ‘나는 이 세상에 잔재해있는 모든 악몽들과 슬픔을 뒤집어쓰고 갈

것이니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어진 성군이 되어라'라고 했다고 한다. 세종은 이후 경기도의 화성, 광주 등에 천문관을 임명했다. 그러자 승정원의 반대상소가 빗발쳤다. 세종은 천재지변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며 천문관 임명을 무르지 않았다. 태종의 토사구팽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결단이었다. 토끼가 없으면 사냥개가 가축과 주인을 물어뜯기 때문이다.

- ◆ 태종의 결단과 세종의 선택을 정권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정치는 정치인에게, 정책은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파 혹은 개인이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행위이다. 정책은 국가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이다. 정치적인 능력과 정책적인 능력은 다르다. 정치인을 정치에 국한시키고 정책은 전문가를 등용하면 정권은 성공할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원리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